

예술 징검다리를 놓다

정승우이사장의 관심은
예술과 사람을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에 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 7번 출구로 빠져나와 걸다 보면 이런저런 상가들 사이 예상치 못한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쿼터 높아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 아닌, 나즈막한 높이에 친근감마저 드는 건물. 누구에게나 열린 이곳의 이름은 ‘유중아트센터’다. 서초구 중심의 서리풀공원에 접해 있는 유중아트센터는 층별로 전시와 공연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다. 2011년 11월 개관한 이래 예술로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중아트센터 2층, 김환기·박서보·이배·이우환·쿠사마 야요이·제니 홀저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정승우 이사장과 만났다.

“유증재단은 지덕체(智德體) 세 가지가 통합을 이루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청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 재단입니다. 재단에서는 후원과 장학 사업을 하고, 유중아트센터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공존하는 융합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2층은 음악과 공연을 위한 아트홀, 3층과 4층은 갤러리로 운영했는데, 코로나19 상황 이후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어려워져 연습실이던 공간을 허물고 미술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유중아트센터는 설립 후 10년간 200회 넘는 공연과 100회에 달하는 전시를 진행하면서 예술 인재 후원은 물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힘써왔다. 통영국제음악제·서울국제음악제·윤이상국제 음악콩쿠르 등 행사와 콩쿠르 운영을 지원하고, 재능 있는 청년 연주자들을 선발해 무대를 제공하거나 후원을 결정했다. 한편으로는 작업 공간이 부족한 작가들의 고충을 받아들여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도 하고, 신진 작가를 공모해 전시를 열거나 아트페어 출품에 도움을 주면서

가능한 많은 예술가들에게 단기간 지원이 아니라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적 외증조부께서는 제게 바이올린을 선물해주시기도 하셨죠. 첫 직장인 삼미문화재단에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가 희귀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사회공헌 사업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비영리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죠. 이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에서 외국인 선주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 운영 등을 맡으면서 해외로 눈을 돌릴 일이 많았고요. 서울대학교미술관 ‘창의적 리더를 위한 예술문화과정 ACP’과 홍콩 크리스티 경매사 과정 등을 수료하면서 점차 미술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국제거래법 전공을 살려서 예술품 거래까지 시야를 넓히게 됐죠.”

정승우 이사장은 유증재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내 ‘징검다리’를 강조했다. 예술가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징검다리, 또 예술가와 예술 향유자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추구한다고 했다.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에 의미 없는 한 번의 도움이 아닌, 필요한 예술가에게 요긴한 손길이 되고자 한다. 단순히 작업 공간을 내주고 그림 한두 번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술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지난해 MMCA 개인 파트너로 국립현대미술관 후원을 시작했다.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터티와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이자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후원회원 등에 이름을 올리며 다양한 기관과 연을 맺은 정승우 이사장은 파트너 후원에 수반되는 ‘신뢰성’이 단번에 국립현대미술관 후원을 결정하게 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사실 후원이라는 것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패턴을 후원을 결정하기 전에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죠. 특정 목적 또는 프로젝트를 정해서 후원금을 사용하고 곧바로 결산한다는 이야기에 믿음이 갔어요. 후원금이 사용될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요.”

나아가 올해 유증재단은 MMCA 파트너로서 국립현대미술관 국제심포지엄 〈미술관은 무엇을 연결하는가〉 개최를 지원한다. ‘파트너’는 미술관의 전시·교육·연구 등 특정 사업을 지정해 후원하는 제도로, 후원자(기업·단체) 또는 후원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미술관의 특정 부문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는 나아가 더 넓은 의미로 유중아트센터와 국립현대미술관이 파트너십을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중아트센터는 개관 당시부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서초구 주민들과 문화 소양을 공유하는 역할을 맡고 싶었고, 정오에 여는 콘서트 눈(Concert[Nun])이나 매달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 유중의 밤 같은 기획으로 방배동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어왔죠. 갤러리든 아트센터든 지역마다 거점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 기관이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초구 방배동의 지역 거점인 유중아트센터가 지역 주민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을 찾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은 생활이 넉넉한 이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이라는 선입견이 깨져야 해요. 그러려면 좀 더 자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요. 지역 거점 기관이 곳곳에 생기면 우리 삶 속 예술이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